鄭雲復의 『獨習 日語正則』의 대역문 연구

한원미*
hwn1985@naver.com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조선에서의 근대 일본어 교육
2. 근대 일본어 학습서
3. 『獨習日語正則』의 소개
4. 『獨習日語正則』 일한 대역문의 특징
Ⅲ. 맺음말

Ⅰ.들어가며

1. 연구 목표

본고는 근대[1] 일본어 학습서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인이 쓴 일본어 학습서 『獨習 日語正則』의 일본어와 조선어 대역문의 대역 형태를 살펴보고 그 상이점과 유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개화기에 발간된 일본어 학습서가 일한 양국어의 언어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조선에서 발간된 근대 일본어 학습서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1890년대부터 1945년까지 발간된 일본어 학습서는 현재까지 약 46개 정도가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근대 일본어 학습서 중 하나인 『獨習 日語正則』의 저자, 서지정보, 책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역 형식을 분석하여 本書가 근대 양국어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1) 본고에서는 조선의 근대시기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부터 식민지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로 한정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언어사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현재 필자가 수집한 근대 양국어 학습서는 약 158개가 있다.[2] 따라서 각각의 학습서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연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학습서를 통하여 당시의 교육정책 및 교육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사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서는 정부의 교육 정책부터 사회 이념, 작게는 저자의 성격이 담겨있다. 이에 양국에서 발간된 학습서를 시기별로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인의 시점에서 일본어 교육 목적, 일본인의 시점에서의 조선어 교육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학습서 연구를 통하여 근대 일본어 및 조선어, 근대 일본어 및 조선어 교육, 근대 학습서의 특징을 개괄할 필요성이 있다. 근대 학습서는 조선에서 발간된 일본어 학습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간된 조선어 학습서도 양국어가 대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발간된 학습서의 양국어를 연구한다면 일본어 및 조선어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앞으로 개화기 학습서 연구를 크게 언어사적 측면, 교육사적 측면, 학습서의 서지 및 내용 측면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위 연구의 시작단계로서 조선에서 발간된 일본어 학습서 중 하나인 鄭雲復의 『獨習 日語正則』을 소개하고, 여기에 나타난 일본어가 조선어로 어떻게 대역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서 『獨習 日語正則』을 포함한 현존하는 근대 학습서가 언어사적 자료로서의 연구 가능성이 있는지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선행연구

『獨習 日語正則』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한중선(1994), 편무진(2001,2005), 송민(2001, 2002, 2003)등이 있다. 위의 연구들은 서지적 연구와 언어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서지적 연구는 한중선(1994), 박성희(2005)등이 있다. 우선, 한중선(1994)은 개화기 학습서를 한일 양국어학습서, 文法書, 會話書, 辭典, 一般學

2) 일본에서 출판된 조선어 학습서 92종, 조선에서 출판된 일본어 학습서 66종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習書, 教科書로 구분한 뒤 간략하게 특징과 서지적 정보를 정리하여 일본어 교육 및 일본어 연구로서의 위치를 알아보았다. 그는『獨習 日語正則』을 회화서로 분류하고 있으며 작가 및 서지정보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박성희(2005)[3]는 개화기 일본어 교과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獨習 日語正則』의 서지적 정보 및 책의 특징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獨習 日語正則』의 언어 연구로는 편무진과 송민을 들 수 있다. 그 중 송민(2005)[4]은『獨習 日語正則』에 사용된 한자어 연구를 통해 개화기의 일본어와 국어의 접촉이 일본어의 간섭을 불렀으며, 그 결과 신문명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국어에 차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국어의 한자어 체계에도 개신과 변화가 나타났고 이것이 현대 국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편무진(2005)[5]은『獨習 日語正則』의 解題, 索引研究, 原文의 서문을 통해 근대 시기의 조선어가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대어에 이르는 과도기적인 언어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양국어가 對譯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일본어의 간섭이나 영향으로 조선어가 변화, 굴절되어가는 과정을 밝히는데 개화기 학습서가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獨習 日語正則』의 조선어와 일본어의 對譯 語節 索引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 개화기 학습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본고의 연구대상인『獨習 日語正則』의 대역문의 대역 형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獨習 日語正則』의 양국어 대역문을 대조 분석하여 언어자료로서 어떠한 연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 박성희(2005)「개화기 일본어 교과서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pp25-27
4) 송민(2005)『開化期 新生漢字語 研究-「独習 日語正則」에 반영된 国語 단어(単語)를 중심으로-「独習 日語正則」』p648
5) 편무진(2005)『独習 日語正則』불이문화 pp3-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본론

1. 조선에서의 근대 일본어 교육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선에서 근대시기에 일본어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어 교육은 고려 및 조선시대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는 국가 차원에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일부 역관들만 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된 것은 1891년 관립일어학당이 세워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은 1874년 일본과의 개항 이후 적극적으로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부 및 선교사, 민간인에 의해 서구식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1894년 이후는 조선 정부에 의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된다. 다만, 조선 정부가 세운 외국어학교에는 선택과목의 하나로서 일본어가 있었기 때문에 1890년대 후반부터 1905년 이전까지의 일본어 교육은 민간인이 세운 '사립 일어학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은 1905년 조선이 일본과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급변하기 시작한다. 을사조약 이후 조선에서는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일본을 배우고 교육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립학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일본 유학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어 학습서가 편찬되기 시작했다.

한편 1905년 이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통감부'를 세우고 조선의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6년제 소학교'가 '4년제 보통학교'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日本語가 필수과목이 되었고, 國語과목과 수업 시수가 동일하게 지정되었다. 아래의 표는 『官報 第3549號』에 실린 「普通學校令施行規則」을 나타낸 것으로 國語가 日本語와 수업 시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6) 李種国(1991)『조선의 교과서-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p.13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官報 第3549號 普通學校令施行規則>

〈표 6〉 普通學校 敎科課程 및 每週 敎授時數表(1906~1909)

學年 \ 敎科目	修身	國語	漢文	日本語	算術	歷史·地理	理科	圖畫	體操	手藝	唱歌	手工	農業	商業	計
시 수	1	6	4	6	6			2	3						28
제 1 학 년	人道實踐의 方法	日常須知의 文學及普通文의 讀法, 書法, 作文	近易한 漢字 漢文	會話及 國語文의 讀法, 書法, 作法	計法, 書法, 通常 加減乘除	本國歷史 地理의 大要		簡易한 諸 敎形體	遊戲, 普通 體操	運針法, 編織, 刺繡	單音 唱歌	簡易한 細工			
시 수	1	6	4	6	6			2	3						28
제 2 학 년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通常加減乘除	同 上		同 上	同 上	通常衣類의 縫法, 裁法, 補綴法	同上	同 上			
시 수	1	6	4	6	6		2	2	3						30
제 3 학 년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通常加減乘除小數의 呼法, 書法及 加減乘除의 分類, 度量衡, 貨幣及 時의 計算	本國歷史 本國及 外國地理의 大要	動·植物 礦物 及 自然의 現象	同 上	同 上	同 上	同上	同 上	農業의 大要	商業의 大要	
시 수	1	6	4	6	6		2	2	3						30
제 4 학 년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簡易한 物理化學의 現象과 人身生理衛生의 大要	同 上	同 上	同 上	同上	同 上	同上	同上	

* 자료 : 官報 第3549號, 普通學校令施行規則[學部令 第23號, 光武 10년(1906) 8월 27일], 別表를 옮김.

한편 '통감부'에서는 일본어 수업을 위해『日語讀本』이라는 교과서를 편찬하여 수업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립학교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및 운영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를 폐교시키는 '폐교령'을 시행하였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도 검정기준을 강화하여 '검정 교과서'의 기준을 만들어 교과서 및 출판된 책들을 검열하여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교과서의 발매를 중지시켰으며, 책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재발매를 허가하였다.[7)]

이와 같이 조선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크게 1890년대 후반과 1905년 이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며, 1905년 이후, 조선인의 일본어 교육과 일본 주도하의 일본어 교육은 성격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2. 근대 일본어 학습서

근대 조선의 일본어 학습서는 크게 통감부가 편찬한 국정 교과서『日語讀本』과 개인이 출판한 학습서로 나눌 수 있다.

7) 李種国(1991)『조선의 교과서-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pp.136-16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통감부에서 제작한 국정 교과서『日語讀本』은 내용과 구성이 일본의『小學讀本』과 비슷하다. 따라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개인이 출판한 일본어 학습서는 일부 일본 유학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1907년부터 다양한 종류가 출판된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당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어 학습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이 발간한 학습서는 주로 단행본으로 제작되었으며, 삽화가 실려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또한 페이지수도 300페이지 정도로 두껍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많다.

당시는 관공립학교가 설립되었지만 학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 稲葉継雄 (1997)[8]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 설립된 사립학교의 수는 약 전국적으로 5천여 개 정도이다. 이 중 일어 학교는 약 400여개로, 사립학교의 0.8%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기는 국민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대중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독학용으로 제작된 학습서가 많았다. 따라서 당시 출판된 일본어 학습서는『獨修自在 日語捷徑[9], 獨習日鮮尺牘[10]』등의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獨修,獨習」과 같은 부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당시 발매된 일본어 학습서의 종류는 교과서, 사전, 문법서, 회화서, 척독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과서로는 위에서 언급한 '통감부'가 편찬한『日語讀本』이 있으며 그 외의 학습서는 당시 발행된 신문, 잡지등의 광고를 찾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학자들이 리스트와 실물을 발굴하고 있다.[11]

『日語讀本』이외의 일본어 학습서는 일본어 문법서, 회화서, 척독문(편지문)이 있으며 이 중 회화서와 척독문은 책의 全文이 일한 대역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회화서의 경우는 당시 사용하던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씨, 지리, 정치, 법률, 학교, 의학, 약학, 문방구등 다양한 종류의 課로 구성되어 있다. 척독문은 당시의 편지글 형식이 새해인사, 안부인사와 같은 세세한 일상생활이

8) 稲葉継雄 (1997)『旧韓末「日語学校」の研究』九州大学出版会 p.33
9) 金島苔水, 広野韓山(1905)『独修自在 日語捷径』青木嵩山堂
10) 鄭雲復(1909)『独習日鮮尺牘』日韓書房
11) 山田寛人(2004)「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不二出版pp233−240
편무진(2001)「韓国資料」의 기초적 연구(1)- 韓国人을 위한 日語学習書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Vol.11 일본문화학회 pp299-32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문어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정교과서와 일본어 학습서는 책의 성격, 구성, 내용면에서 차이점이 있어, 근대의 일본어 교육 양상을 알기 위해 당시 편찬된 학습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중 조선인이 발간한 학습서의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유실된 것이 많아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책의 리스트와 소장처 등이 밝혀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책의 연구가 서지적, 언어적,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점차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근대 조선의 일본어 학습서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어 학습서『獨習日語正則』의 내용 및 구성을 소개하고, 本書의 대역문 분석을 통하여, 언어자료로서의 연구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獨習日語正則』의 소개

『獨習日語正則』은 정운복이 1907년에 편찬한 일본어 학습서로서, 책의 크기는 세로22cm, 가로15cm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1『獨習日語正則』의 서지사항

일본어는 개항 이후부터 관립 외국어 학교 및 사립 일어학교에서 교육되어 왔었다. 그러나 일본어 수업의 수업 시수가 많지 않았으며, 조선인을 위해 발행된 일본어 학습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일본어 수업은 일본 현지에서 사용하던 조선어 대역이 실려 있는 조선어 학습서 및 일본 소학교 교과서[12]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부터 전국 관・공립학교에서는 일본어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통감부에서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편찬한 일본어 교과서인『日語讀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반면 전국의 사립학교 및 야학에서까지 정부에서 편찬한 일본어 교과서를 사용하기에는 교과서 보급

12) 본고에서는 정부에서 편찬하여 관・공립학교에서만 사용된 일본어 학습서를 '교과서'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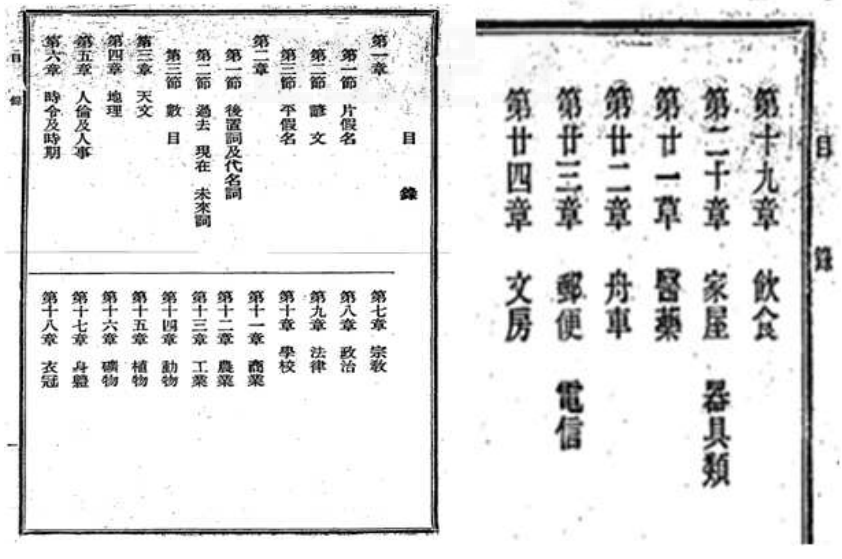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력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든 학습서 및 시중에 출판된 독학용 학습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습자들도 독학을 하기 위해 시중에 출판된 일본어 학습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3]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당시 발행되는 외국어 학습서는 학습자가 독학 할 수 있도록 대역문으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獨習日語正則』도 『獨習』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는 점과, 원문의 제1과와 제2과를 제외한 제3과부터 제24과의 全文이 일한 대역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통감부에서 발행하여, 전국의 공립학교에서 일본어 교사가 직접 수업에서 사용하였던 일본어 교과서 『日語讀本』의 全文이 일본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를 통해서도 『獨習日語正則』이 독학서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3.2. 『獨習日語正則』의 구성 및 목차

<獨習日語正則 의 목차>



13) 한중선(1994) 「개화기 일본어 학습서 소고」日語日文学研究 第25輯 pp142-14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獨習日語正則』의 체재는 위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1과와 2과에서는 일본어와 조선어의 문자, 발음법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본론에 해당하는 제3과부터 제24과까지는 일본어가 조선어로 대역되어 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과부터 제6과까지는 날씨, 일본의 자연, 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 국의 나라이름과 지명 및 일주일의 단위, 24시간의 시간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제6장부터 제13장까지는 서양의 종교 및 법률, 정치, 학교, 농,공,상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만든 일본제 한자어가 조선어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제14장부터 제24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약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제5과'人倫及人事' 가 p32- p81로 원문의 18.28%, 제8과 '政治'가 p97-p138로 원문의 15.29%, 제10과 '學校'가 p135-p157로 원문의 8.2%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人倫及人事', '政治', '學校'에 관한 내용이 本書의 41.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책의 글자 편집은 제1과부터 제24과의 全文이 상하 2단 편집의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어 文의 바로 왼편에 이에 대응되는 조선어 文이 시작되는 구성으로 편집되어 있다. 또한 각 과의 冒頭에는 해당 課에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나열하였다.

<獨習日語正則 의 구성>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3. 저자 소개

저자인 정운복은 한말 애국계몽을 통한 국권회복의 민족운동에 나서 1906년 이갑(李甲)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단체인 서우학회(西友學會)를 조직하여 교육기관의 확장을 강조하고, 민족의식의 고취에 힘썼다. 특히 저자는 『獨習日語正則』의 서문에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일본을 통해 서양 학문이 유입되기 때문에 일본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저자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이 책을 집필한 것으로 추측된다.

3.4. 발간현황

<大韓每日申報 1907년11월22일 33면>

獨習日語正則

鄭雲復氏著

特別減價一圓

郵稅 拾錢

此日語正則은自天文地理로至農商工業諸般學術及人事百般히緊要ᄒᆞᆫ句를綱羅하야正確ᄒᆞᆫ發音과簡明ᄒᆞᆫ翻譯으로編纂ᄒᆞ야獨習에가장便利ᄒᆞᆫ故로出版ᄒᆞᆫ지未久에千餘部ᄂᆞᆯ出售ᄒᆞ옵고再版의期가在選ᄒᆞ온지라이에自本月十五日로十二月二十五日ᄭᆞ지定價一圓二十五錢에二拾五錢은減ᄒᆞ옵고一圓에出售ᄒᆞ와一般ᄭᆞ界의便益을裨補코ᄌᆞᄒᆞ옵ᄂᆞᆫ바都數와日字의定限이잇ᄉᆞ오니江湖兼ᄭᆞ子ᄂᆞᆫ爭先購覽ᄒᆞ시옵

(十二月二十五日以後에ᄂᆞᆫ定價外에一分不減ᄒᆞᆫ)

京城中署布屛下三十七統六戶

廣學書舖 金相萬 告白

本書는 『皇城新聞』에서 1907년 10월5일부터 1910년 8월 14일까지 약 3년, 『大韓每日申報』에서 1907년 10월 8일부터 1910년 8월 2일까지 3년동안 지속적으로 광고가 나갔다. 다음의 『大韓每日申報』 광고글에는 이 책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大韓每日申報』에 190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린 이 책의 광고 글을 보면 '천문, 지리, 농업, 상업, 공업, 각종학술 및 인사 등의 분야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간단한 語句로 실려 있고, 정확한 발음과 간단한 번역으로 편집되어 있어 인기가 있다'라고 쓰여 있어 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3.5 사용기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책은「獨習」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일반 학습자의 독학용 학습서로 제작되었다. 이 책은 1910년 통감부에 의해 '금지 검정 교과서'로 분류되었다.[14] 검정 교과서는 일반인이 편찬한 도서 중 1907년 '학부령'과 1908년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에 부합하여 사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뜻하는 데 이 책이 '금지 검정 교과서'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독학용 학습서로서뿐만 아니라 당시 사립학교에서 교과서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15]

또한 저자인 정운복은 서북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학회는 사범학교인 서북협성학교(西北協成學校), 노동자 교육을 위한 수상야학(水商夜學)· 측량과(測量科)· 심학강습소(心學講習所)· 농림강습소(農林講習所) 등을 설치하여 교육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책은 당시 서북학회가 운영하던 학교를 중심으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6. 내용 및 구성

本書의 표기는 일본어와 조선어 대역문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어는 단어인 경우는 한자, 서술어는 한글로 표기된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고 있다.

本書는 앞서 언급했듯이 총 268장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를 제외한 앞장에 3명의 축문과 저자의 서문, 그리고 목차로 구성 되어있다.

목차는 총 24개의 課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課가 총 268페이지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목차를 보면 제1장과 2장에서는 일본어와 조선어의 문자, 발음법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본론에 해당하는 제3장부터 제24장까지는 일본어가

14) 朝鮮総督府 官報 第69号 1910年 11月 19日
15) 허재영(2010)「통감시대 어문 교육과 교과서 침탈의 역사」도서출판 경진 pp180-1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조선어로 대역되어 있다.

4.『獨習日語正則』일한 대역문의 특징

본장에서는 학습서에 실려 있는 일한 대역문의 분석을 통하여 일본어를 조선어로 어떻게 대역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대역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獨習日語正則』의 대역문에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원문의 일본어와 조선어의 대역 관계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자료이기 때문이다.『獨習日語正則』은 모든 일본어 文에 조선어가 대역되어 있으므로 양국어의 대역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이로 인해 원문의 일본어 文에 대응하는 조선어 文의 구조를 다른 번역문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대역문 성질은 양 언어의 대조 분석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역문은 양국어 문장을 文, 句, 單語 등의 세분화된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이 가능하다. 언어 계통 측면에서 조선어와 일본어는 어순 및 문법 체계 등이 비슷한 교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역문의 대조 및 비교 분석이 다른 언어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일본어의 기초만 알고 있으면 교사의 도움 없이도 제시된 일본어 文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대역문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와 조선어는 단어, 助詞, 어순 등 언어 계통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이러한 양국어 文의 구조는 '단어:단어', '助詞:助詞'와 같은 단위로 나누어서 비교, 대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 언어의 유사점과 상의점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근대에 사용되었던 일본어와 조선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의 일본어 학습서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조선어로 직역하고 있는 것이 많아 당시에 사용되던 일본어가 조선어로 어떻게 대역되었는가를 살펴보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셋째, 교과서 문장은 신문이나 소설등에 비해 문체가 간결하지만 당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던 문법 및 어휘 혹은 지향되어야 될 문체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 통용되고 있던 언어양상을 알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 일본어 학습서 중 하나인『獨習日語正則』의 대역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일본어와 조선어 대역문의 구조를 비교하여, 일본어 원문과 조선어 대역문의 구조가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경우의 완전 대역문과 불일치하는 경우의 불완전대역문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여『獨習日語正則』의 일본어가 조선어로 어떻게 대역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한 대역문의 文의 범주는 일본어 文의 종결된 후, 조선어 文의 대역이 시작되는 특징을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뒤, 일본어와 조선어 文의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다만, 양국어 文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양국어 文이 의미적으로 동일하고, 형태적인 면에서 조사 및 어순이 일치하면 완전 대응하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1)의 어휘「自由ニ→ 任意로」는 양국어가 모두 한자어이다. 그러나 조선어 대역에서는 일본어와는 다른 형태의 한자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국어의 한자어의 의미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어휘의 형태가 달라도 의미가 동일하다면 완전히 대응하는 文으로 분류하였다.

(1) 祖父ハ 今年八十五歳ニナリマスガ **自由ニ** 外出モ 出來マセンデス。
祖父는 今年八十五歳가되는ᄃᆡ **任意로** 出入도 못ᄒᆞ옵니다. (p33-하)
(2) アレ 御覽ナサイ 虹ガ 立ちました 奇麗デハ アリマセンカ。
뎌거 보시오 무지게가 ᄲᅢ비쳣소 곱지 안습닛가. (p17-상)
(3) フロツコート 一組ヲ 宜ク 仕立テ下サイ。
후록코-트 ᄒᆞᆫ벌 잘 지어주시오(p166-상)
(4) 米作ノ 豊凶ハ 商賣ニ 影響ヲ 及ス コトガ 多イデス。
米作의 豊凶은 쟝사에 影響 되는 일이 만습니다. (p176-상)

예문(1),(2)는 文을 구성하고 있는 품사, 어순, 조사가 완전히 대응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예문(3),(4)는 文의 구조 중 일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예문(3),(4)의 「一組ヲ: 흔벌」, 「影響ヲ : 影響」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ヲ」에 대응하는 조선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일한 대역문의 분류를 통하여 조선어 대역문의 단어, 어순등이 일본어와 등가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4.2. 일한 대역문의 구분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역문의 조사의 유무, 어순의 일치, 文의 구성개수를 등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조선어 文을 ①1:1로 완전 대응하는 경우와 ②불완전 대응하는 경우로 분류를 하였다. 분류 결과, 아래의 <표1>과 같이 『獨習日語正則』에 나타난 전체 일본어 文은 1908개, 조선어 1907개로 조선어 대역文이 한 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위의 분류기준에 따라 『獨習日語正則』 대역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어와 조선어가 완전 대응하는 경우는 1592개, 불완전 대응 하는 경우는 315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고의 고찰대상인 일한 대역문의 대응은 아래의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일본어와 조선어 대역문의 대응

文의 분류	대역 종류	文의 갯수	구성 비율
완전 대응	1:1 대역	1592개	83.4%
불완전 대응	조사가 생략된 대역	269개	14.1%
	조사가 추가된 대역	44개	2.3%
	어순이 다른 대역	2개	0.1%

<표1>을 통하여 완전 대응하는 경우는 文의 구조와 의미가 모두 같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일대일 대역 형태가 원문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원문의 대부분의 대역문이 직역으로 대역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불완전 대응하는 경우는 일본어 文의 구조를 따르면서 조선어에서 조사가 생략되거나 추가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2.1. 완전 대응하는 경우

文구조의 측면에서의 완전 대응하는 경우는 원문의 일본어 文에 대한 조선어 대역문의 구성이 단어의 일치, 조사의 유무, 어순의 일치, 句의 구성 개수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것은 일대일 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하는 文의 구조가 완전 대응하는 일대일 대역의 경우를 조사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대일 대역이란 일본어 文에 대응하는 조선어 文의 구성 요소가 빠짐 없이 직역으로 대역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 형태는 예문 (5),(6)와 같이 짧고 간단한 文으로 구성된 것과 예문 (7),(8)와 같이 긴 文의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단어만 나열해 놓는 열거법의 대역형식을 가지는 文도 있었다. 이를 통해 本書에서는 완전 대응으로 분류된 1592개의 文이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서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역문이 이와 같은 일대일 대역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祖父ハ 今年八十五歳ニナリマスガ **自由ニ** 外出モ 出來マセンデス。
祖父는 今年八十五歳가 되ᄂᆞᆫᄃᆡ **任意로** 出入도 못ᄒᆞ옵니다 (p34-상)

(6) 死ンダ 跡デ 書置ヲ 發見シマシタ。
죽은 後에 遺書를 發見ᄒᆞ얏ᄉᆞᆸ니다 (57-상)

(7) 世界ヲ 亞細亞 歐羅巴 阿弗利加 南亞米利加 北亞米利加 濠太利亞ノ 六大洲ニ 分ケテアリマス。
世界를 亞細亞 歐羅巴 阿弗利加 南亞米利加 北亞米利加 濠太利亞를 六大洲에 分ᄒᆞ얏ᄉᆞᆸ이다 (p30-상)

(8) 世界各國ノ 首府ヲ **擧グテ見マスレバ** 朝鮮ハ 京城 日本ハ 東京 **支那ハ** 北京 露西亞ハ 聖彼得堡 印度ハ 下爾加塔 暹羅ハ 盤谷 獨逸ハ 伯林 法蘭西ハ 巴里 白耳義ハ 白拉 塞 英吉利ハ 倫敦 西班牙ハ 馬德里得 葡萄牙ハ 里斯本 合衆國ハ 華盛頓デス。
世界各國의 首府를 **들어본즉** 朝鮮은 京城 日本은 東京 **淸國은** 北京 露西亞ᄂᆞᆫ 聖彼得堡 印度ᄂᆞᆫ 下爾加塔 暹羅ᄂᆞᆫ 盤谷 獨逸은 伯林 法蘭西ᄂᆞᆫ 巴里 白耳義ᄂᆞᆫ 白拉 塞 英吉利ᄂᆞᆫ 倫敦 西班牙ᄂᆞᆫ 馬德里得 葡萄牙ᄂᆞᆫ 里斯本 合衆國은 華盛頓이올시다(p30-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대일로 대응되는 대역문의 경우는 단어가 일정하게 나열되거나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文의 구조가 단순하여 대역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문(8)의 일본어 단어「支那ハ」가 조선어「淸國은」로 단어의 의미와 조사가 대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8)「擧グテ見マスレバ」의 경우「擧グテ」가「들어」와 대응되고「見マスレバ」는「본 즉」으로 대응된다. 이러한 '일대일 대응'은 대역문에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독자가 양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기에 근대 학습서의 대역 형태의 특징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불완전 대응하는 경우

일한 대역문이 불완전 대응하는 경우는 조선어 조사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와 조선어 조사의 일부가 추가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이것은 위의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1907개의 조선어 대역문 중 16.5%만이 불완전 대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2.1 조사의 생략

일본어 文에 대응하는 조선어의 경우 文을 구성하는 조사의 일부가 생략되는 대역 형태가 자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어와 조선어의 공통점 중 하나는 助詞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의 조사가 전부 조선어 조사로 대역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원문의 일본어 文에 해당하는 助詞가 조선어 文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원문의 315개의 불완전 대응하는 文 중 조사의 일부가 생략이 된 文는 269개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생략된 조사는「ノ」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어 조사「ノ」와「ノ」이외의 조사로 나누어 일본어 조사가 조선어 대역에서 어떠한 경우에 생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① 조사「ノ」의 생략

조사「ノ」가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38개의 文에서 예문(9)의「昨夜ノ：어제밤(x)」와 같이「ノ」가 생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예문(9)의「桜ノ花」와 같이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는 경우의 조사「ノ」는 생략에서 제외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9) **昨夜ノ** 雨風ニ 庭ノ **桜ノ花ガ** 悉皆 散ツテ 仕舞ヒマシタ。
어제밤 風雨에 뜰의 **櫻花이** 왼통 써러지고 마럿습니다(p21-상)

조사「ノ」는 기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日本國立國語研究所(1951)[16]에 따르면「ノ」를 격조사로 분류하고 앞뒤 명사의 관계에 따라서 그 의미를 소유, 소속, 장소, 범위, 시각 및 시기등으로 나누고 있다. 조선어의 경우는 김승곤(1989)[17]이「의」를 전항명사과 후항명사의 관계에 따라서 소유주, 위치, 방향, 선택의 범위, 재료, 수량 등의 의미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와 김승곤(1989) 분류를 기초로 격조사「ノ」를 시간, 내용한정, 소속, 관계의 부분으로 나누어 어떤 의미에서 조선어가 생략되었는가를 알아보았다.

㉠ 시간 ,시기를 나타내는「ノ」에 대응하는 조선어의 생략

조사「ノ」가 시간을 나타낼 때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다음의 예문(10),(11),(12)와 같은 것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년, 월일, 개월, 계절, 시기」를 나타내는 경우는 조선어 대역에서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격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0) 今晩ハ 満月デスガ **舊ノ十五日ヂヤ**__ゴザイマセンカ。
오늘밤은 滿月이니 **陰曆十五日이** 아닙닛가 (p16-하)
(11) 皇太子殿下ノ御誕生日ハ **陰曆ノ二月八日**デゴザイマス。
皇太子殿下의誕生日은 **陰曆二月初八日**이올시다 (p33-상)
(12) **天長節ノ翌日ハ** 日曜日デセウ。
天長節다음날은 日曜日이지오 (p85-상)

반면「시대, 기념일, 행사」를 나타내는 경우는 예문에서는 조선어 관형사「의」가 생략되어 있지만 예문(11),(12)「皇太子殿下(의) 誕生日은, 天長節(의) 다음

16) 日本国立国語研究所(1951)『現代語の助詞・助動詞-用例と実例-』,秀英出版 pp155-171
17) 김승곤(1989)「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깁더조선말본]의 비교.분석」,『한힌샘 주시경연구』 Vol.2 pp39-8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날은」과 같이 「의」가 추가되어도 문맥이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두 경우 전부 뒤에 오는 후항 명사가 전항명사에 소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의」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후항명사가 수량명사이거나 형식명사인 것으로 보아 조선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관형사 「의」의 사용이 지양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 내용한정을 나타내는 「ノ」에 대응하는 조선어의 생략

내용을 한정할 때 「ノ」가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예문(13)의 「昨夜ノ 雨風/어제밤 風雨에」의 「雨風/風雨에」와 같이 명사구의 核은 후항명사에 있지만 「昨夜ノ/ 어제밤」와 같이 전항 명사가 형용사처럼 후항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의 전항 명사는 시간, 범위, 성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3) **昨夜ノ雨風ニ** 庭ノ桜ノ花ガ 悉皆 散ツテ 仕舞ヒマシタ。
어제밤風雨에 쓸의櫻花이 왼통 써러지고 마럿습니다 (p21-상)

(14) **諸般ノ準備ガ** モウ 整ヘマシタカラ 來月ノ初旬ヨリハ 着々 仕事ニ掛リマセウ。
諸般準備가 별셔 정돈되엿스니 來月 초싱브터는 ᄎᆞᄎᆞ 일을시작ᄒᆞ옵시다 (p75-상)

(15) 先日大阪造幣局カラ **各種ノ貨幣ガ** 參リマシタ。
前日大阪造幣局에셔 **各種貨幣가** 倒着ᄒᆞ얏습니다(p110-상)

예문(13)은 전항명사의 의미가 「시간」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 「昨夜ノ 雨風」와 같은 경우 「雨風」는 「昨夜」라는 시간에 비가 내렸다는 의미로 한정된다. 이 때 격조사 「ノ」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선어의 경우는 전·후항 명사만이 띄어쓰기를 통해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이 후항의 범위 및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14)의 「諸般ノ準備ガ/諸般準備가」, 예문(15) 「各種ノ貨幣ガ/各種貨幣가」의 전항명사 「諸般ノ」와 「各種ノ」는 각각 후항명사인 「準備ガ」와 「貨幣ガ」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는 앞의 예문과 동일하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격조사「ノ」가 범위를 의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속을 나타내는「ノ」에 대응하는 조선어의 생략

소속을 나타내는 경우「ノ」가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명사구의 核은 아래의 예문(16)「熊本縣ノ 人ガ/熊本縣ᄉᆞᄅᆞᆷ이」, 예문(17)「日本ノ 婦人ハ/日本 婦人은」의「熊本縣ノ」,「日本ノ」와 같이 전항명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항 명사는 앞의 예문과 같이 장소나 나라 등을 나타는 경우가 많으며 후항 명사는「大使」와 같이 지위,「婦人」과 같은 역할 등을 나타내어 전항에 소속되어 있거나 혹은 소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항 명사에 후속하는 일본어 격조사「ノ」는 전항 명사에 후항 명사가 소속되는 의미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6) 韓國ニ 來テ井ル日本人ニハ 熊本縣ノ人ガ 多イデス。
韓國에 와잇ᄂᆞᆫ 日本ᄉᆞᄅᆞᆷ은 熊本縣ᄉᆞᄅᆞᆷ이 만습니다 (p26-하)
(17) 日本ノ婦人ハ 御客樣ガ 見エルト 玄關マデ 出迎マス。
日本婦人은 손님이 오시면 마루ᄭᅳ지 나와 영졉ᄒᆞ옵니다 (p37-상)
(18) 外國ノ大使ガ 來ル時ニハ 陛下カラ 勅使ヲ 差遣シテ 歡迎イタシマス
外國大使가 올ᄯᅢ에ᄂᆞᆫ 陛下께옵셔 勅使을 差遣ᄒᆞ야 歡迎ᄒᆞ옵니다 (p110-하)

구라시마레이코(2011)[18]은 소속을 나타내는「의」는 생략 혹은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위의 예문(16)의 조선어는「熊本縣(의)ᄉᆞᄅᆞᆷ이」,「外國(의) 大使가」처럼 전항 명사와 후항 명사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관형사「의」를 추가하여도 문장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소속'을 의미할 경우 조선어「의」는 생략이 가능하며 후항 명사에 따라서「의」의 사용 유무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관계를 나타내는「ノ」에 대응하는 조선어의 생략

관계를 나타낼 때「ノ」가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예문(19)는 친족, 친구

18) 구라시마레이코(2011)「일본어の와의 대조를 통한 조선어 '의'의 생략 양상 연구- 준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pp57-5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일본어는 격조사「ノ」가 사용되었지만, 조선어는 대응되는 대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19) **私ノ弟ハ** 二三年前ヨリ 洋行シテヲリマス。
ᄂᆡ아ᄋᆞᄂᆞᆫ 二三年前브터 洋行ᄒᆞ옵니다(p35-상)
(20) 其ノ連中ハ 皆**昔ノ朋輩**デシタガ 今ハ 一人モ 殘ツテ井マセヌ。
그사ᄅᆞᆷ들은 다**녯적親故**ᄃᆡᆺᄂᆞᆫᄃᆡ 지금은 ᄒᆞ낫도 남지 안앗습니다 (p37-상)
(21) **朋友ノ間ニハ** ヨクナイ事ガ アレバ 互ニ 忠告スルノガ 當然ノ事デアリマス。
親舊사이에ᄂᆞᆫ 잘못ᄒᆞᄂᆞᆫ일이 잇스면 서로 忠告ᄒᆞᄂᆞᆫ것이 當然ᄒᆞᆫ일이오 (p37-하)

위의 예문(19),(20),(21)를 보면 일본어는 격조사「ノ」를 사용하여야 그 의미가 완성되는 반면 조선어는 관형사「의」가 생략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19)의「ᄂᆡ 아ᄋᆞᄂᆞᆫ」의 경우는「ᄂᆞ의」의 줄인 말로「ᄂᆡ」가 된 것이기에「의」가 축약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20)의「녯적 親故」는「녯적(의) 親故」를 추가하여도 문맥이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전·후항이 모두 명사로 이루어져 있기에 때문에 의존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적」의 뒤에「의」를 생략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문(21)의「親舊 사이에ᄂᆞᆫ」의 후항명사「사이」는 그 앞에 명사가 오는 경우, 어떤 조사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사이」의 여러 가지 의미 중, '서로 맺은 관계, 또는 사귀는 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원문의 예문「선후배 사이」와 같은 용례를 확인해 본 바「사이」 앞에 명사가 위치하는 경우 조사의 사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조사「ノ」이외의 생략

위의 조사를 통해서 원문에서 가장 많이 생략된 조사는「ノ」였으며 전항, 후항 명사의 성질에 따라서 조선어 대역에서 생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원문에서는「ノ」이외의 일본어 조사에 대응하는 조선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 1907개의 文 중 31개만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그 중 각각 조사「ヲ」가 생략된 경우가 14번, 조사「ニ」에 대응하는 조선어가 생략된 경우가 10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으로, 생략되는 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 조사「デ」가 3번, 조사「ト」가 2번, 조사「へ」가 1번, 그 외 부사가 생략된 경우가 1번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의 생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ヲ」와 조사「ニ」가 어떤 경우에 조선어 생략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 조사「ヲ」에 대응하는 조선어가 생략된 경우

일본어 조사「ヲ」는 조선어에서 목적격「을(를)」로 대역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예문(22)의「遊事ヲ シテ井マス/ 노름ᄒᆞ옵니다」를 보면 조선어 대역「ヲ」에 해당되는 대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어에서 생략된 부분은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조사「을(를)」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22) 小供ガ　大勢集ツテ **遊事ヲ**シテ井マス。
　　ᄋᆞᄒᆞ들이 만히뫼여셔 **노름**ᄒᆞ옵니다(p38-상)
(23) 當時　知名ノ有志者タカラ 誰デモ　**尊敬ヲ拂ヒマス**。
　　當時　有名ᄒᆞᆫ有志者이기로 누구던지 **尊敬ᄒᆞ옵니다**(p72-상)
(24) 籠ヲ　持ツテ **松茸ヲ 採リニ**　行キマセウ。
　　보금이 가지고 **松茸**　**키러**　가옵시다 (p201-하)
(25) **某ヲ打ツテルノヲ** 見ルニ 餘程　氣樂ラシイナ。
　　바득두ᄂᆞᆫ 것을　보니　아조　한가ᄒᆞ구나(p241-하)

예문(22)의「遊事ヲ シテ井マス」은 명사 뒤에「ヲ シテ」와 같은 連語가 사용되거나 예문(23)「尊敬ヲ 拂ヒマス」처럼 관용어처럼 쓰이는데, 이에 대한 조선어 대역은「노름ᄒᆞ다」,「尊敬ᄒᆞ다」와 같이 동사 자체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어 예문(24)의「松茸ヲ 採リニ」의 경우 후항 동사「採リニ」는 앞에 전항 명사「松茸」만 있어도 동사의 의미가 전항 명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조사「ヲ」가 생략되어도「松茸 採リニ」처럼 非文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조선어 대역 예문「松茸 키러」는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후항동사「키러」와 전항 명사「松茸」가 의미상 밀접하기 때문에 조선어 조사「을(를)」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문(25)의「某ヲ 打ツテルノヲ」는 조사「ヲ」가 두 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某」 뒤에「勉強スル」처럼 다른 동사가 대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다. 반면 이에 대한 조선어는 예문「바듁 두는 것을」을 보면 조사「을(를)」이 한 번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丸田(1995)[19]는 조사「ヲ」가 동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위의 예문을 종합해서 보면 조선어 조사「을(를)」도 일본어「ヲ」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조사「ニ」에 대응하는 조선어가 생략된 경우

원문의 조사「ニ」는 조선어「에,셔,을(롤),로,ᄒᆞᆫ데,으로,이(가),하게,의게,ᄒᆞ러,은,마다,ᄒᆞ고」와 같이 다양한 조사로 대역되었다. 반면 아래의 예문과 같이 일본어 조사「ニ」에 대응하지 않는 조선어 대역도 있었으며 어떤 의미의 조사가 생략되었는가를 알아보았다.

(26) 御子息様ハ **日本ニ往ツテ** 大學校ヲ 卒業シテ 御歸リニナツタサウデスガ 實ニ 羨シイ コトデス。
子弟가 **日本가셔** 大學校를 卒業ᄒᆞ고 도라오셧다ᄒᆞ니 참 부러운 일이올시다(p35-하)

(27) **電車ニ 乘テ** 往ケバ 宜イヂヤアリマセンカ。
電車 타고 가면 됴치안켓습닛가(p146-하)

(28) 此歳 **御幾ニ 成リマシタカ。**
今年에 **몃술 되엿습닛가**(p147-하)

(29) **仰向ニ 倒レテ** 臂ヲ 怪我シマシタ。
반 듯 잣바져셔 팔굼치를 다쳣습니다(p207-상)

이 중 예문(26)의「日本ニ 往ツテ/ 日本가셔」, 예문(27)의「電車ニ 乘テ/電車 타고」와 같이 생략되지 않아도 되는 조선어 대역이 생략된 경우가 10개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생략된 조선어 조사는 예문「日本(에)가셔」를 제외하고는「에」가 아닌 다른 조사가 생략되어 있었다. 우선 예문(26)의「日本가셔」의 생략된 조선어 조사「에」는 김신애(1991)[20]가 분류한 조사「에」의 여러 가지 의미 중

19) 丸田孝志(1995)「韓日漢字語の品詞にずれと用語に関する研究-日本語教育の時角から一」人文科学論集 Vol.14 pp.235-253

20) 김신애(1991)「韓国語 助詞「에」와 日本語 助詞「に」의 比較」동덕 여자대학교 연구보고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행동이 향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문(27)의 「電車 타고」의 후항동사 「타고」는 예문(26)의 「가셔」와 같은 이동 동사이지만, 여기에서 생략된 조선어 조사는 「電車(을) 타고」가 되어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을(를)」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일본어 조사 「ニ」에 대응하는 조선어 조사는 이동 동사의 전항 명사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조사의 쓰임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4.2.2.2. 조사의 추가

여기에서는 일본어 文에 대응하는 조선어 조사의 일부가 추가되어 대역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한다. 전체 1907개의 조선어 대역문 중 조사의 일부가 추가된 조선어 文은 44개이다. 여기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 「이(가)」, 「로」를 살펴보았다.

① 격조사 「이(가)」

조사 「이(가)」는 특성상 앞에 명사를 동반하며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아래 예문(30) 「両方(X) 爭ヒマスカラ/량편**이** 다토기로」은 명사구 「両方」 뒤에 동사구 「爭ヒマスカラ」가 나와 앞의 명사 「両方」가 동사 「爭ヒマス」의 주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文의 주어를 나타내는 중요 조사 「ガ」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어, 일본어에서는 조사 「ガ」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예문(31) 「結局(X) ドウナリマシタカ/ 結局**이** 엇지되엿습닛가」의 경우 「結局」는 주어가 아닌 동사를 보충해주는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현대 조선어에서도 조사를 동반하지 않는 거나 동반하더라도 조사 「이(가)」보다는 「에는」이라는 귀결을 나타내는 의미로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개화기 조선어에는 조사 「이(가)」의 사용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30) **両方　爭ヒマスカラ** 中ニ立ツテ 仲裁ニ 努メマシタ。
량편이 다토기로 中間에셔 仲裁에 盡力ᄒᆞ얏습니다. (p73-하)

---

pp.73-8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1) 先日ノ事ハ **結局** ドウナリマシタカ。
日前일은 **結局이** 엇지되엿습닛가(p63-상)

㉡ 격조사「로」

조선어 격조사「로」는 예문(32)「以來(X) 內外國人ヲ/以來로 內外國人을」와 같이 범위, 예문(33)「結果(X) 調書ヲ/ 結果로 調書를」와 같이 결과,「方方(X) 廻リナガラ/各處로 도라듼기면셔」와 같이 장소,「二三日来(X) 公務ガ/二三日來로 公務가」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일본어 격조사로는「ニ」와「ヲ」가 사용된다고 추측된다.

조선어의 경우 예문(32)「結果로」의미는 현대 조선어에서는 조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로서」로 사용된다. 또한 예문(34)의 조선어 대역문「各處로」의 경우에도 현대 한국어에서는「各處를」로 목적격 조사「를(을)」이 쓰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사 뒤에 동반되는 조사의 종류가 조금씩 바뀌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32) 礦山ノ規則ヲ 發表シタ **以來 內外國人ヲ** 問ハズ 農商工部ニ 出願スル者ガ多イデス。
礦山規則을 發表ᄒᆞᆫ **以來로 內外國人을** 勿論ᄒᆞ고 農商工部에 請願ᄒᆞᄂᆞᆫ者가만습니다. (p99-상)

(33) 警務廳ニハ 訊問課ガ アリマシテ 凡ノ罪人ヲ 審査シタ **結果 調書ヲ** 拵ヘテ 罪人ト 共ニ 裁判所ヘ 送リマス。
警務廳에ᄂᆞᆫ 訊問課가 잇셔셔 온갖罪人을 審査ᄒᆞᆫ **結果로 調書를** ᄆᆡᆫ드러 罪人과 갓치 裁判所로 보ᄂᆡ옵니다. (p134-하)

(34) 配達夫ハ **方方** 廻リナガラ 新聞ヲ 配リマス
分傳人은 **各處로** 도라듼기면셔 新聞을 分傳ᄒᆞ옵니다(p260-하)

Ⅲ. 맺음말

본고는 개화기 학습서 연구의 일환으로서, 1907년 발간된 정운복(鄭雲復)의『獨習日語正則』에 나타난 대역문의 분석을 통하여 일본어가 조선어로 어떻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역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역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본고의 대역문의 분석 기준을 통하여 대역문을 완전히 대응하는 경우와 불완전하게 대응하는 경우로 나눈 결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本書의 83%의 일본어가 조선어와 어순, 조사의 유무까지 동일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었다. 언어가 성질이 같아도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本書의 대역문은 형태면에서 높은 비율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本書는 조선어가 한문체에서 한글체로 변화를 겪고 있던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일본어 文 구조 및 형태의 특징을 조선어 대역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불완전 대응은 조사의 대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일본어 文에 있는 조사가 조선어 대역문 에서는 생략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로서, 특히 일본어 조사「ノ」가 조선어에서는 체언과 체언 사이에서 시간, 내용한정,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때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本書에 실려 있는 대역문의 분석을 통해 근대 조선어가 겪고 있던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일본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한글체로 변해가는 과정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 학습서가 언어 연구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獨習日語正則』의 대역문의 형태 분석 이외의 부분은 조명하지 못하였으며, 한 권의 책으로 개화기의 언어양상을 살펴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학습서 연구의 시작 단계로서『獨習日語正則』을 통하여 개화기 학습서가 언어사적 측면에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는 개화기 학습서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근대 1890년대부터 1945년도까지 일본어 학습서의 언어사적 변화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학습서 구성, 커리큘럼 변화와 같은 교육학적인 측면, 시대 정세에 따른 내용 변화 측면에서도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을 금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구라시마레이코(2011)『일본어の와의 대조를 통한 조선어 '의'의 생략 양상 연구- 준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pp57-58.

김승곤(1989)『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깁더조선말본]의 비교.분석,한힌샘주시경연구』Vol.2 pp39-82. 1989.

김신애(1991)『韓国語 助詞「에」와 日本語 助詞「に」의 比較』동덕 여자대학교 연구보고서pp.73-82.

송민(2005)『開化期 新生漢字語 研究- 「独習 日語正則」에 반영된 国語 단어(単語)를 중심으로-「独習 日語正則」』pp.517-630.

李種国(1991)『조선의 교과서-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p.133, pp136-164

鄭雲復(1909)『独習日鮮尺牘』日韓書房

편무진(2001)『「韓国資料」의 기초적 연구(1)- 韓国人을 위한 日語学習書를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

Vol.11. 일본문화학회 pp299-325

한중선(1994)『개화기일본어 학습서 소고』日語日文学研究 Vol.25pp.139-168

_____(1997)『개화기 일어교육에 관한 고찰: 학부편찬『일어독본 (日語読本)』을 중심으로』日本学報Vol.38 pp.133-148

金島苔水, 広野韓山(1905)『独修自在 日語捷径』青木嵩山堂

丸田孝志(1995) 『韓日漢字語の品詞にずれと用語に関する研究-日本語教育の時角から一』人文科学論集Vol.14 pp.235-253.

日本国立国語研究所(1951)『現代語の助詞・助動詞-用例と実例-』,秀英出版. pp155-171.

金義英(2007)『開化期日本語学習書会話に関する考察』日本文化研究 第22輯 pp299-314

稲葉継雄(1990)『日本語教育』 文芸言語研究. 言語篇 Vol.18 pp.79-112

_____(1997)『旧韓末「日語学校」の研究』九州大学出版会 p.33

＜単行本＞

稲葉継雄(1997)『旧韓末「日語学校」の研究』九州大学出版会p.33

山田寛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不二出版 p233-240

＜官報＞

朝鮮総督府 官報 第69号 1910年 11月 19日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투고일 : 2014.06.29
❖ 심사완료일 : 2014.08.07
❖ 게재확정일 : 2014.08.12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鄭雲復の『獨習 日語正則』対訳文研究

韓元渼

本稿は、1907年、韓国人の日本語学習のために作られた『獨習日語正則』の構成や内容を紹介し、本書に書かれている対訳文の対訳形態を分析し、言語資料として本書が持つ意味を考えてみ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

本書は誤字がなく、本,全体の文の中で１つの文だけが抜いている。また、多様な内容で構成されている点からこの本は言語資料として分析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この時期の朝鮮語は漢文体からハングル体に変わている混乱な状態であった。それで文法、文体、語彙などで様々な揺れが見られる。調査の結果、本書に書かれている日本語の83％が朝鮮語対訳と語順、助詞の有無などの言語的な側面で一致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その結果、本書は日本語の文、及び形態が朝鮮語に影響をさ受けたと考えられる。また、17％の対訳が一致していない場合は日本語の助詞「ノ」が朝鮮語対訳で省略されていることが多かった。

本稿は『獨習日語正則』一部だけを研究しているし、まだ語彙や品詞の活用などの側面までは対照分析を行われていないことから次々、多様な側面での分析が必要である。そして近代の学習書はこれ以外にも約157個が発見されている。それで残っている各々の学習書研究を通じて時代別に学習書の言語と言語以外のカリキュラム、内容変化などの部分まで研究する必要性が確認できた。

Key Words：近代，日本語学習書，日本語教育，対訳文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A study of the parallel texts in Jeong-Un-Bok's『獨習日語正則』

Han, Won-mi

This paper intends to introduce a 1907 Japanese workbook that was published for Koreans who wanted to study Japanese. The book was written in both Japanese and Korean. Therefore, an analysis of the book can provide insight into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The parallel texts in question are:『獨習日語正則』.

This book contains no misspellings and has correct parallel texts and varied content and is therefore worthy of study.

In modern times, Korean grammar has changed, as has the language's style of writing and vocabulary. Therefore, it was a chaotic ag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83% of Japanese can be translated to Korean using the same type and structure. This finding suggests that Korean accepts the modern Japanese grammar, style of writing, and vocabulary structure. Korean is not accepted in only 17% of grammatical structure.

This paper conducted a document-based study with little focus on grammar and vocabulary. However, it is clear that many modern workbooks are worthy of study. To this end, this author has accumulated 157 modern workbooks and plans to continue her studies in this field.

Key Words : Modern-times, Japanese study book, Japanese education, parallel texts in Japanese and Korea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